

“공공급식 제도 구체적 실행할 것”

황인홍 무주군수, 월례조회서 실행계획 수립 농업인 아픈 마음 위로 언급

무주군이 쌀값 안정을 위해 자체 공공급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군수는 1일 전통문화의집에서 열린 11월 월례조회를 통해 무주군 자체 공공급식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농업인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따뜻한 행정을 아울러 펼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쌀값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재경향우회를 비롯해 출향인과 무주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정정 무주 쌀 시주기’를 범군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 군수는 직원들을 월례조회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졌다.

황 군수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함께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준수해 체



황인홍 무주군수가 1일 전통문화의집에서 열린 11월 월례조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자체 공공급식 제도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심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황 군수는 △신불예방 및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 △행정사무감사 및 23년 본예산 대비 철저 △수능 생 자녀 둔 직원 격려 △일하는 자체 당부 등을 당부하면서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주문하고 월례조회를 마무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안성면 사전마을회관 준공식 가져

주민 화합·휴식 공간 마련

무주군은 1일 안성면 사전마을회관 준공식을 가졌다. 마을회관은 주관하고 주민들이 화합과 휴식공간이 마련됐다.

준공식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윤정훈 도의원, 주민들이 함께 했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마을회관은 연면적 160.26㎡ 규모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올해 9월 완공됐으며, 거실과 방, 회장실 2개, 창고 등을 갖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홍 군수는 기념사에서 “사전마을 주민 여러분이 노후된 공간에서 많



이 불편을 겪었는데 넓은 공간으로 지어진 마을회관을 신축해 축하드린다”며 “새롭게 탄생한 마을회관이 주민들

합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치매안심전문가 활동 성공전략 워크숍 개최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공공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양성하는 치매안심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1일 진안문화의 집에서 열린 이번 교육에는 진안읍,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부귀면, 정천면 등 6개 지역 치매안심전문가 120여명이 참석했다.

치매안심전문가는 지역의 리더들로 구성하여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다가가 꾸준히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거주 마을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안심전문가

의 사례 발표에 이어 치매안심전문가 활동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과 치매환자 대응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의 둘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치매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치매안심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치매정신행동증상의 이해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합계출산율 ‘전국 3위’

2021년 기준 1.56명 기록… 출산 장려 정책 효과 입증

진안군은 1일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군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합계 출산율(2021년 기준)에서 진안군이 1.56명을 기록하며 전국 3위, 도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합계 출산율 0.81명 전북 0.85명에 비해 2배가량 높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기준 출산율에서도 전국 7위, 도내 2위를 기록하는 등 수년 간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의 종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군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인구소멸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 추진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안군의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장려지원

금, 임산부 이송지원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자 지원 서비스, 첫 만남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기자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아동 영양제 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 공급, 산후건강 관리 지원 등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질적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2021년부터 출산장려금을 기준 첫째아, 둘째아에게 220만 원씩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이 3년간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송미경 보건소장은 “군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높은 출산율로 나타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이어 넣고 키우기 좋은 진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한우지방공사 성수영 사장 취임

장수한우지방공사의 4대 사장으로 성수영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 행정관이 1일 취임했다.

최훈식 군수는 1일 군청에서 성수영 신임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장수한우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수영 사장은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공사와 한우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부서장들과의 첫 상견례 자리에 마련한 성수영 사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핵심사업인 종축개량과 관련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노력할 것”을 공사 부서장들에게 당부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하반기 친절 위생업소 접수

진안군은 2022년 하반기 친절 위생업소에 대해 포상을 추진한다.

포상은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진안군의 친절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

친절 위생업소는 진안군에서 3년 이상 영업을 한 업소 중에서 주민추천을 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친절도평가(온라인 투표), △위생청결도(건물환경, 편의시설 등), △가점요소(행복 상품권 기관, 장애인편의시설 자율설치등) 및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개 업소를 최종 선정한다.

친절 위생업소로 선정되면 1개 소당 500만원 상당의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 지급되고, 현판이 부착된다. 또한, 진안군 홈페이지를 통해 업소 홍보 등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친절 위생업소 추천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2022년 하반기 친절 위생업소 추천 공고문 서식을 디온받아 11월 4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위생팀(063-430-2315, 이메일 umon56@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산서면, ‘산서아가페 재가복지센터’ 개소

장수군 산서면은 지역에서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서면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9명(남 376명, 여 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수군 평균 노인인구 비율 36.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다른 지역보다 재가복지시설이 중요한 지역이다.

명의 노인성 질환 보유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서면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919명(남 376명, 여 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장수군 평균 노인인구 비율 36.5%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로, 다른 지역보다 재가복지시설이 중요한 지역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